

동화 문체의 중한 번역

백수진
(계명대)

1. 서론

글에는 그 영역과 목적에 따라 법률문, 광고문, 기사문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텍스트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텍스트 유형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복잡한 모형으로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 유형들은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체를 지닌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체는 기능적 문체(functional style)로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기능에 의해 구분된 문체다. 언어는 사회활동의 서로 다른 영역에 사용되어 서로 다른 유형의 문체를 생산한다. 언어가 법률 활동에 사용되면 법률 문체가 만들어지고 광고 활동에 사용되면 광고 문체가 만들어지고 문학 활동에 사용되면 문학 문체가 만들어진다.

문학문체는 형상사유와 수사를 필요로 하고 감정 표현과 공명을 목적으로 하며,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풍부한 연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과학 문체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논증의 치밀함과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뜻이 조밀하고 명확해야 하며 다의성이나 중의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동일한 진공청소기에 제품에 대한 글이라도 진공청소기 제품 광고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진공청소기 제품 사용설명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품 사용설명서는 서술문의 형식을 취하고, 판매가 목적인 광고문은 호소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형식과 함축적 언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어휘나 문장 사용에서도 언어학적인 특성을 지닌다. 신문 문체도 사실의 경우 뉴스 보도와는 달리 강력한 호소와 권유의 형식을 취한다. 이처럼 문학, 과학, 광고 등의 텍스트 유형들이 지니는 문체는 대부분 관용화된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목적과 작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번역도 달라야 한다.

J. P. Vinay et J. Darbelnet는 번역을 ‘비교 문체론의 적용’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두 언어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문체의 문제이며, 번역은 두 언어의 문체상의 차이를 대조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번역은 대상 언어에 대한 문체상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이승권 1998).

본문에서는 중국어의 여러 텍스트 유형 중에서 동화 문체를 가지고 한국어 동화 문체와 비교해보고 이것이 번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려 한다. 동화 문체는, 특히 한국어에서 다른 문체 유형에 비해 문체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번역에서도 번역가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어 번역에서 과감한 삭제와 첨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한 번역이나 번역 교육을 위해서는 동화 문체의 번역 기교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동화 문체 분석에 사용한 원어 텍스트는 대만에서 출판한 『椅子樹』(國語日報社)이고 그 번역 텍스트는 『행복한 의자나무』(북뱅크)이다.

2. 한국어 동화 문체의 특징과 중한 번역

박갑수(1994: 501)는 『국어문체론』에서 동화 문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동의 문장 호흡은 성인의 것에 비하여 짧다. 아동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표현할 때 성인과는 달리 단선적·직선적 표현을 자주 쓴다. 이 같은 현상은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동은 세상 지식이 부족하고, 사물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힘이 부족하여, 계층적·복합적 표현을 하기 어렵다. 구어체든 문어체든 장면(상황 맥락)에 의존하는 발화가 많고, 사건의 서술이 시간 순서나 인과 관계를 따른다. 아동의 문장에서 단문이 많고, 명제의 나열식인 접속문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반복성을 선호하며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남은 정보는 거의 생략하고 행동성을 많이 부각시킨다.

다음은 『동화상자 속의 중국어』에서 인용한 원문과 번역문이다. 한국어 번역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번역문이라기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역에 가까운 해석문으로 볼 수 있다.

這間屋子住着一個老太婆，一只鷄，一只貓，老太婆很喜歡它們。當她撫摸着貓的鬚毛時，這只貓便會把背拱起來，喉嚨裏發出嘍嘍嘍嘍的聲音，老太婆親密地叫它“小寶貝”。那只鷄的腳很短，老太婆就叫它“短腳的咕咕太太”。它很會生蛋，老太婆也把它當寶貝看。

인 집에는 나이든 할머니가 살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고양이와 닭이 한 마리씩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의 곱슬거리는 털을 어루만질 때마다 이 고양이는 즉시 등을 구부리고 목구멍에서 야옹거리는 소리를 낼 줄 알아서 할머니는 친근하게 그를 ‘작은 보배’라 불렀습니다. 닭의 다리는 매우 짧아서 할머니는 그녀를 ‘짧은 다리의 꼬꼬마님’이라 불렀고 또한 알을 잘 낳아서 할머니는 그를 역시 보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동화상자 속의 중국어』)

아동을 위한 문장은 길이가 짧고 구조가 단순해야 한다. 그런데 번역 텍스트에서는 성인의 문장처럼 긴 복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원문 텍스트에 있는 지시어와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옮겨 번역하였다. 중국어 동화텍스트에서는 인칭대명사나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어 동화텍스트에서는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3인칭 대명사 ‘그(그녀)’, ‘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화번역 텍스트 문체에 맞추어 번역하려면 지시어를 생략하고

인칭대명사를 완전명사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 __집에는 나이든 할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닭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와 닭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의 곱슬곱슬한 털을 어루만지면 __고양이는 등을 구부리며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다정스럽게 고양이를 ‘귀염둥이’라 불렀습니다. 닭은 다리가 매우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닭을 ‘짧은 다리 꼬꼬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닭은 알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닭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어 동화 텍스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아래 번역에서도 상징어(“꽝꽝”)를 첨가하여 번역하면 읽을 때 리듬감을 느껴 청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次日清晨，一个農夫經過那裏看見凍僵的丑小鴨，便走過去，用木鞋敲破冰層，把它抱起來，並且帶回家交給他太太照顧。

→ 다음날 아침, 농부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꽝꽝** 떨어버린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

다음 장에서의 『행복한 의자나무』에서도 ‘살며시’, ‘쨍쨍’, ‘쑹쑹’, ‘새근새근’, ‘핑핑’, ‘ 짹’ 등과 같은 상징어가 많이 나타난다.

椅子樹爲了怕主人晒到太陽，再加上自己一天比一天開心快活，它漸漸的把枝干往四周伸展， 叶片也多了起來。(『椅子樹』)

나무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으로부터 에이트를 지켜 주려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를 키웠어요. 가지들은 쑹쑹 하늘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초록 잎들이 나무를 뒤덮었어요. (박지민 譯)

번역에서처럼 상징어를 첨가하여 번역함으로써 훨씬 리듬감을 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 작품에서 의성어·의태어는 외형상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해 운율감과 리듬감을 주어 기억하기 쉽고 회화적이고 감각적이며, 우리말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채완 2003:225). 상징어 외에도 동화 작품에서는 ‘조금씩 조금씩’처럼 반복적 표현을 선호한다.

3. 『행복한 의자나무』 번역 분석

3.1. 제목 번역

작품 제목은 전체의 얼굴이자 작품의 첫인상과 같다. 그만큼 독자의 흥미와 시선을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목이다. 제목이 너무 평범하면 흥미를 심어주기 어렵고, 내용과 동떨어지거나 분명하지 않은 제목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나치게 비약적인 제목보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참신하고 명쾌하고 재미있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멋진 제목은 독자를 끄는 향기이다. 박상재(2002:160)는 제목은 작품과 독자를 연결해주는 첫 매체이기에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했다. 그가 말한 작품의 제목이 차지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은 독자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진다. 동화의 제목이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끌지 못하는 평범하고 진부한 것이라면 독자들의 독서의욕을 자극하지 못할 것이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으로는 『날아다니는 코끼리』(김요섭), 『춤추는 눈사람』(김병규), 『말하는 항아리』(오세발), 『서울로 간 허수아비』(윤기현), 『소문이 열리는 나무』(조한순) 등이 있다. 어린 독자는 제목만 보고도 “어, 코끼리가 어떻게 날아다니지?”, “어, 항아리가 말을 하다니”와 같은 궁금증으로 책을 손에 쥐고 싶어 한다.

둘째 동화의 제목은 함축적 기능을 갖는다. 동화의 전체 내용이 제목 속에 농축되어 나타나야 한다.

셋째 동화의 제목은 환기적 기능을 갖는다. 어떤 작품을 다 읽고 났을 때 생각나는 것은 그 동화의 제목과 등장인물이 이름, 그리고 특징적인 사건의 이미지들이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차 잊혀져가고 제목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화의 제목은 동화 내용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본문에서 인용한 텍스트의 제목은 『椅子樹』이다. 번역 텍스트에서는 원제를 “의자나무”로 번역하지 않고 “행복한 의자나무”로 번역하였다. 『椅子樹』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이기적인 외톨이 의자나무가 어느날 에이트를 알고나서부터 주변의 동물들에게 행복을 주게 된다는 내용이다. 동화의 제목은 그 작품의 주제를 압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행복한 의자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독자에게 와 닿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업성을 띤 책 제목의 경우 『날아다니는 교실』과 같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다면 “椅子樹”는 “그들을 되찾은 의자나무”, “행복을 주는 의자나무”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또한 동화의 제목 번역은 관념적인 느낌이 드는 한자어보다는 순수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아동책 제목 중에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란 것이 있다. 원어 텍스트의 제목 “Hair in Funny Places”(1999, Babette Cole)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호기심 많은 성장기 어린이의 신체발달 과정을 호르몬을 의인화한--호르몬 아저씨와 호르몬 아주머니라는--물활론적 사고방식으로 표현한 뛰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판매가 부진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이 책을 번역하여 성공하였다. 번역 텍스트의 제목은 “有什么毛病”이다. 책 판매의 성공 여부는 번역에서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와 상관이 있다고 본다.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는 얼핏 보기에는 호기심을 끄는 제목인 것 같지만 아동을 위해 책을 사는 성인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毛病”이란 단어는 “흠, 결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면서 글자 자체의 의미는 “털(毛)”과 “질병(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有什么毛病”이란 제목은 의미의 중의성이나 모호성 - “무슨 문제가 있니?”와 “털이 나는 병” - 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일반 독자에게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어 번역도 아예 “아빠, 내 몸이 달라졌어요”, “아빠, 내 몸이 변했어요”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을 것 같다.

안데르센의 동화 번역 제목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대부분 원제의 의미를 되살려 번역한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중국어에서는 “황제의 새 옷(皇帝的新衣)”으로, “미운 오리새끼”를 중국어에서는 “못생긴 새끼오리(丑小鸭)”로 표현한다. 원래는 백조였던 오리가 오리의 무리 속에 살면서 동료 오리들과 다르게 생긴 모습 때문에 못 생겼다고 무시당하는 내용이 중국어 제목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 국내 출판된 책에서는 이미 “미운 오리새끼”란 제목이 고착화되어있다. 제목만을 보면 매사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오리가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연상시킨다. 아마도 ‘미운 오리새끼’란 단어가 ‘못생긴 오리새끼’란 단어보다 어린 독자에게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여기서 ‘미운 오리새끼’라는 의미표현이 적합한지가 의문이다. ‘미운 어미오리의 새끼’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미운 새끼오리’, 혹은 ‘미운 아기오리’란 표현이 맞다.

3. 2. 동화번역 기교

원문 『椅子樹』와 그 번역문 『행복한 의자나무』의 표현 비교와 번역 기교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듬기의 틀- 1) 부연과 첨가, 2) 생략과 삭제, 3) 변환, 4) 이동과 정돈- 을 사용하였다. 1) 부연과 첨가는 원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용한다.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 2) 생략과 삭제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문장을 없애버려 문장을 탄력 있게 한다. 3) 변환은 적절한 어휘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4) 이동과 정돈은 전체 문장의 흐름을 놓고 앞뒤를 정돈하기 위해 옮기는 방법이다.

3. 2. 1 부연과 첨가

[단락6]에서는 첫 문장에서 단락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문장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했어요”를 첨가하였다. [단락5]까지는 나무가 새, 벌, 나비들이 놀러오는 것을 싫어하는 내용이다. [단락6]에서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나무를 싫어한다는 의미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문에는 없지만 단락간이 의미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했어요”를 첨가하였다. 또한 이 문장은 [단락7]의 “나무는 늘 외톨이였어요”와 의미상 首尾가 호응하는 결속 구조를 이룸으로써 이기적인 나무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단락6]

爲了不讓孩子玩耍，它的身体光溜溜的，沒有一根枝干可以攀爬。但

是, 頑皮的孩子們, 仍然想盡各種辦法, 拿了繩子和梯子來遊戲。

[단락7]

那棵怪樹沒有什麼枝干和葉片, 也沒有足夠的樹蔭讓大家乘涼, 當風吹過的時候, 就不能像其他的樹一樣, 發出沙沙的聲音。它的心里只有自己, 從來不替別人着想, 因此花園里的動物們都不喜歡它, 它覺得非常孤單。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나무에 오르지 못하도록 나무의 몸은 미끌 미끌 했어요. ... [단락 6]

...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를 동물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무는 늘 외톨이였어요... [단락 7]

[단락15]에서는 “蚯蚓”(지렁이)을 “개미와 지렁이”로 번역하였다. 나무등지 밑에는 지렁이 외에도 개미가 많다는 것은 어린 독자도 알기에 첨가했을 수도 있고, 나무를 사랑하는 친구가 많이 생겼음을 강조하기 위해 어휘 첨가를 했을 수도 있다. 동화 번역에서는 어린이에게 좀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나 도착 언어에 맞는 어떤 상황 설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단어를 첨가할 수 있다.

[단락16]에서는 “이것 좀 보세요”란 표현을 첨가하였다.

[단락16]

微風吹過, 它會發出催眠曲一般的沙沙聲。這時候, 所有的動物都在樹蔭底下安靜的-睡着了。

산들바람이 불면 나무는 쉼쉼, 가장 좋은 자장가를 들려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나무 그늘에서 모두들 새근새근 잠자고 있잖아요!

마치 번역자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듯 “이것 좀 보세요”를 첨가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다.

[단락14]

在冬天里, 椅子樹用密密麻麻的枝干, 把白雪擋在外面, 不讓鳥兒和松鼠受寒。它保護着 它的朋友們, 并且讓大家來分享它的一切。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 되자 나무는 가지를 짙 펴쳐 눈을 막아 주었고 새들과 다람쥐들을 꼭 안아서 추위로부터 지켜 주었어요.

원문의 ‘겨울(冬天)’을 번역문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로 표현하여 뒤 부분의 ‘눈’과 문장 내에서의 어휘결속을 피하고 있다. ‘눈’이란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추운 겨울에 친구들을 보호해주는 나무의 사랑을 어린 독자에게 강조하고 있다.

3. 2. 2 생략과 삭제

일반적으로 동화의 서두에는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의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첫 도입부부터 과감한 생략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어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단락1]

“巨人埃特的花園里，有一棵奇怪的樹。園子里所有的動物和植物在談論它。

[단락2]

那棵樹既驕傲有自私，總喜歡把脖子舉得高高的。”

거인 에이트의 꽃밭에는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단락 1]

나무는 제멋대로에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단락2]

[단락1]의 번역에서는 “園子里所有的動物和植物在談論它”(꽃밭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이 나무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를 생략하였다. 원고 분량이나 출판 의도 때문에 생략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을 번역할 경우 오히려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이 단절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흥미를 끌만한 주인공을 소개하였으면 곧바로 이 주인공이 어떠한 성격의 인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문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한국의 전래동화도 대부분 “옛날 ~에 ~가 살고 있었습니다.”로 시작하고 뒤이어 곧바로 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을 소개한다. 그 사이에 다른 인물 소개나 상황 설명을 첨가하면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다음 예도 동화 텍스트의 전형적인 도입 부분이다.

在很久很久以前，有一个皇帝，特別喜歡新衣服。他把所有的錢都花在衣

服上面, 一点儿也 不關心軍隊和貧窮的老百姓。

오역: 아주 오래 전에 오래 전에, 황제가 한명 있었는데 새 옷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옷에다 썼고 조금도 군대나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역)

중국어나 한국어 모두 텍스트 도입부에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제3의 인물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은 똑 같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중국어의 문장간 접속구조에 맞추어 그대로 번역할 경우 한국어 표현에 문제가 생긴다. “以前有一个皇帝, ()特别喜歡新衣服”의 예에서처럼 중국어에서는 존현문의 형식을 갖춘 앞 문장에 사용된 목적어(皇帝)를 뒤 문장 주어로 사용할 경우 이 주어는 일반적으로 ‘他’로 대치하지 않고 생략하는 영형(zero-form)의 주어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반드시 주어를 첨가해 “옛날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임금님은 새 옷 입기를 좋아했어요”로 번역해야 한다.¹⁾ 간혹 “옛날에 새 옷 입기를 무척 즐기는 임금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처럼 관형어적 구조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 [단락 10]을 보자.

[단락10]

而椅子樹則每天盼望着主人能來這里坐一坐, 陪它度過寂寞的時光, 并且再次帶給它那 种快樂的感覺。

언제부터인가 나무는 에이트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陪它度過寂寞的時光, 并且再次帶給它那 种快樂的感覺。” 부분은 번역에서 생략하였다. 번역자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쓸쓸했던 시간을 에이트와 함께 보낼 수 있어 나무는 더없이 행복 했어요”라는 번역문을 첨가하는

1) ‘우리클 바로쓰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 번째 절에서 주어를 첨가하지 않는 문제를 ‘잘못된 주어 생략’의 예로 지적하곤 한다. 예를 들면, “춘원 이광수는 1917년에 『무정』을 발표했는데, 국문학사상 최초의 근대장편소설이다.” ⇒ “춘원 이광수는 1917년에 『무정』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은/『무정』은 국문학사상 최초의 근대장편소설이다.”에서처럼 주어(이 작품은/무정은)를 첨가해야 한다고 한다. 동화 글에서도 “옛날에 ‘존’이라는 욕심쟁이 왕자가 살았습니다. 존 왕자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로빈 후드와 욕심쟁이 왕자』, 계몽사)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이미 고착화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것보다 생략하는 것이 ‘기다림’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외 [단락11]과 [단락12]에서도 생략이 이루어졌다. 생략은 1) 문장간의 연결에서 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2) 단락이나 문장 내에서 정보성이 약하여 독자에게 군더더기로 비쳐질 때 주로 이루어진다.

3. 2. 3 변환

‘변환’은 적절한 어휘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단락3]

其實它長得就像一只戴着羽毛圍巾的无毛怪物，根本沒有鳥儿愿意住在那里。

새들도 목 언저리에 나뭇잎 몇 장밖에 없는 이 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一只戴着羽毛圍巾的无毛怪物’는 ‘깃털 목도리를 두른 털 없는 이상한 동물’의 뜻이다. 차구의 뜻에 맞추어 번역할 경우 어린 독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 언저리에 나뭇잎 몇 장밖에 없는 나무’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번역서에는 나무의 형상을 기린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이 있다. 나뭇잎 한 두 장만 나 있는 기린 목 같은 벌거숭이 가지에 그네만 걸려있는 그림이 있다. 동화 텍스트에서는 그림도 중요한 번역 내용 중의 하나이다.

3. 2. 4 이동과 정돈

‘이동과 정돈’은 전체 문장의 흐름을 놓고 앞뒤를 정돈하기 위해 옮기는 방법이다. 아래 번역문에서는 인과 관계의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단락4]

它不愿意和蜜蜂、蝴蝶分享花蜜，所以它的花朵儿，從不發出任何的香味。

나무의 꽃에서는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았어요. 나무는 벌이나 나비가 놀러 오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나무는 벌이나 나비가 날러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서(所以) 어떤 향기도 내뿜지 않았다.”를 거꾸로 번역하였다. 중국어 동화 텍스트에는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어 동화 텍스트에서는 접속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접속어(所以)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해보면 “나무는 꿀과 나비에겐 꿀을 나누어주길 싫어했어요. 나무의 꽃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향기도 나지 않았어요.”와 같이 된다. 문장간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단락15]

就這樣，椅子樹深深受到大家的喜愛 ……

꽃밭에 사는 모든 친구들은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무는 모든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椅子樹深深受到大家的喜愛)”라는 수동 의미를 능동 의미로 바꾸어 “꽃밭에 사는 모든 친구들은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로 표현하였다. 번역자가 새로운 단락의 출발점에서 주제 전환(나무’에서 ‘모든 친구’로)을 꾀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단락 내에서의 주제 전개를 ‘大→小(‘꽃밭에 사는 모든 친구’→‘딱다구리’→‘지렁이’)로 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원어 텍스트에서 새로운 단락에서 주제 전환을 하지 않고 ‘나무’를 주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椅子樹深深受到大家的喜愛’ 뒤에 문장부호(쌍점)가 있었기 때문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화문체를 서로 비교해보고 이것을 중한 번역에 적용시켜 보았다. 두 언어의 동화문체상의 특징 중 한국어 동화문체에서는 인칭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椅子樹』의 번역문 『행복한 의자나무』에 나타나는 동화 문체의 특징과 번역 기교를 알아보기 위해 ‘부연과 첨가’, ‘생략과 삭제’, ‘변환’,

‘이동과 정돈’의 다듬기 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연과 첨가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징어를 많이 동원했다는 점이다. 상징어는 운율과 리듬감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어린이에게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나 도착언어에 맞는 상황설정을 위해서도 번역에서 어휘첨가가 이루어졌다. 그 외 대화체로의 전환이나 번역가가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성 때문에 번역에서 어휘첨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생략과 삭제’는 텍스트 도입부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도입부에서는 주인공(혹은 첫 등장인물)에 대한 주제결속이 명확해야 한다. 다른 주체가 개입되어 주제전환이 있을 경우 번역에서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용상 불필요한 정보도 생략할 수 있다. ‘이동과 정돈’에서도 주제 전환의 기법을 동원하였다. 표현기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 결속 유지, 텍스트의 리듬, 번역가의 의도 등이 ‘부연과 첨가’, ‘생략과 삭제’, ‘이동과 정돈’ 등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화 텍스트의 번역은 문체의 번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번역가의 의도성 외에도 출판사에서 번역가의 표현 방식보다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과감한 삭제와 첨가를 한 점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본문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하나의 작품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국어 동화 문체의 특징과 중한 번역기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그 한계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동화 문체의 번역 특징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번역 기교 분석을 위한 틀도 ‘부연과 첨가’, ‘생략과 삭제’, ‘변환’, ‘이동과 정돈’이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부록〕

『椅子樹』

1. 巨人埃特的花園里有一棵奇怪的樹。園子里所有的動物和植物在談論它。
2. 那棵樹既驕傲有自私，總喜歡把脖子舉得高高的。最奇怪的是它的脖子比身體還要長呢！
3. 因為擔心鳥兒太吵，會讓它無法安靜休息，它只長了少少的幾片葉子，這樣子鳥兒就不能在它身上築巢啦！其實它長得就像一只戴着羽毛圍巾的無毛怪物，根本沒有鳥兒願意住在那里。
4. 它不願意和蜜蜂、蝴蝶分享花蜜，所以它的花朵兒，從不發出任何的香味。
5. 它的果子只有在深夜才會長出來，而且一遇到陽光馬上就爛掉，除了貓頭鷹以外，沒有人嘗過它果子的美味。
6. 為了不讓孩子玩耍，它的身体光溜溜的，沒有一根枝干可以攀爬。但是，頑皮的孩子們，仍然想盡各種辦法，拿了繩子和梯子來遊戲。
7. 那棵怪樹沒有什麼枝干和葉片，也沒有足夠的樹蔭讓大家乘涼，當風吹過的時候，就不能像其他的樹一樣，發出沙沙的聲音。它的心里只有自己，從來不替別人着想，因此花園里的動物們都不喜歡它，它覺得非常孤單。
8. 有一天，巨人埃特到花園散步，走着走着，注意到了那棵怪樹，他覺得很像椅子，便坐在樹上休息。
9. “不好意思啊！借我坐着休息一下。呵！你坐起來還真舒服哇！”怪樹聽到主人這麼夸獎它，心里產生了一種從沒有過的高興感覺，它几乎忘了自己被巨人壓得有點兒不舒服。
10. 自從巨人埃特發現了這顆『椅子樹』后，便常常來這里看書，喂鴿子，跟小朋友玩耍，以及對這椅子樹說些贊美的話。而椅子樹則每天盼望着主人能來這里坐一坐，陪它度過寂寞的時光，並且再次帶給它那種快樂的感覺。
11. 椅子樹為了怕主人晒到太陽，再加上自己一天比一天開心快活，它漸漸的把枝干往四周伸展，葉片也多了起來。
12. 到了春天，椅子樹的花愈開愈多，愈開愈久。巨人埃特非常的高興，更

愛來這里賞花，吟詩和唱歌。連小鳥和松鼠也喜歡到這里湊熱鬧。

13. 現在，它不但歡迎鳥兒來築巢，也歡迎小動物們來玩。椅子樹變得親切而熱情。
14. 在冬天里，椅子樹用密密麻麻的枝干，把白雪擋在外面，不讓鳥兒和松鼠受寒。它保護着它的朋友們，並且讓大家來分享它的一切。
15. 就這樣，椅子樹深深受到大家的喜愛：啄木鳥會不定期來幫它作檢查，瞧瞧它的身体里有沒有小虫。蚯蚓會在土里幫它松土，好讓它的樹根，伸展到更廣更遠的地方，並且站得更穩固。
16. 有了大家的幫忙和關心，椅子樹成爲巨人埃特最舒服的椅子，同時也是花園里最漂亮的樹。在大太陽下，它茂盛丰厚的叶子，使得它的樹蔭成爲花園里最涼爽的地方。微風吹過，它會發出催眠曲一般的沙沙聲。這時候，所有的動物都在樹蔭底下安靜的--睡着了。

『행복한 의자나무』

1. 거인 에이트의 꽃밭에는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2. 나무는 제멋대로에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언제나 목을 쭉 빼고 있는 걸 좋아해서 목만 길게 늘어난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3. 나무는 새가 노래하는 것이 그저 시끄러울 뿐이었어요. 나무는 새들이 모여 앉아 떠드는 게 싫어서 가지도 없이 잎사귀 몇 개만 돌아나게 했어요. 그러면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없을 테니까요. 새들도 목 언저리에 나뭇잎 몇 장밖에 없는 이 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4. 나무의 꽃에서는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았어요. 나무는 벌이나 나비가 놀러오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5. 나무 열매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살며시 열렸다. 아침햇살이 몸에 닿자마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엉이 말고는 아무도 맛있는 나무열매를 맛보지 못했어요.
6.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나무에 오르지 못하도록 나무의 몸은 미끌미끌 했어요. 그래도 개구쟁이 아이들은 밧줄이랑 사다리를 가져와서 나무와 놀고 싶어했어요.
7. 가지도 잎도 없는 이 나무 아래에서는 그들이 없어 아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요 바람이 불어도 다른 나무들처럼 썩아 썩아, 기분 좋은 소리를 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를 동물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무는 늘 외톨이였어요.

8. 어느날, 꽃밭을 산책하던 거인 에이트는, 의자 모양을 한 이 나무를 보고는 잠시 걸터 앉아 쉬기로 했어요.
9. “미안하지만, 잠시 앉아 쉬어도 되겠니? ...아아, 너에게 걸터앉으니 정말 기분이 좋은 걸.”
나무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그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한 뭐라 말 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서 에이트가 무거워 견딜 수 없었는데도 꼭 참고 있었어요.
10. <의자나무>를 알게 된 에이트는 자주 나무를 찾아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무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 주곤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무는 에이트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11. 나무는 쟁쟁 내리쬐는 햇볕으로부터 에이트를 지켜 주려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를 키웠어요. 가지들은 쑥쑥 하늘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초록 잎들이 나무를 뒤덮었어요.
12. 봄이 되자 나무는 많은 꽃을 피웠어요. 에이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나무를 찾아와 꽃을 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새들과 다람쥐들도 하나 둘 놀러와서 나무 주변은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13. 나무는 새들이 노래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새가 둥지를 트는 것도 좋아했어요. 어린 동물들이 놀러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았어요. 나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친구가 되었어요.
14.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 되자 나무는 가지를 짙게 펼쳐 눈을 막아 주었고 새들과 다람쥐들을 꼭 안아서 추위로부터 지켜 주었어요.
15. 꽃밭에 사는 모든 친구들은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딱따구리는 벌레가 나무를 파먹지 않는지 자주 살펴보러 왔어요. 개미와 지렁이는 나무가 더 멀리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흙을 부드럽게 해 주었어요.

16.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의자나무는 이제 에이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아래는 에이트의 꽃밭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되었어요. 산들바람이 불면 나무는 쉼쉼, 가장 좋은 자장가를 들려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나무 그늘에서 모두들 새근새근 잠자고 있잖아요!

(*『椅子樹』(행복한 의자나무), 량슈린 글*그림/박지민 譯)

참고 문헌

박상재. 2002. 『동화 창작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박갑수. 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주).
 백수진. 2002. 『중국어번역 급소지르기』. 다락원.
 백수진. 2004. 「중국어 텍스트 유형의 문체와 번역」. 『中國語文學論集』 제 27호.
 이승권. 1998. 「번역의 방법으로 본 비교 문체론」. 『康星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채 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
 侯維瑞. 1988. 「文体研究和翻譯」. 『外語教學與研究』 第3期.
 <분석 텍스트>
 박지민 譯. 2002. 『행복한 의자나무』. 북뱅크.
 조대형 譯. 2000. 『동화상자 속의 중국어』. 정진.
 최성희 譯. 2003.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여명미디어.
 黃鈺璇 譯. 1999. 『有什么毛病?』. 格林文化事業.
 梁淑玲. 1998. 『椅子樹』. 國語日報社.

[Abstract]

Chinese-Korean Translation of the Fairy Tale Style

Baek, Su-Jin
(Keimyung University)

When translating Chinese fairy tales into Korean, the difference in express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is the subject of style. Thus, there is a need to contrastively analyze and organize the difference in expressions between the two languages when translating. This thesis applies the characters of the fairy tale style to Chinese-Korean translation, pointing out the translation fallacies. This thesis also compares the original Chinese text, 『椅子樹』 with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행복한 의자나무』(*A Happy Tree for a Chair*), examining the characters of the fairy tale style and the translation techniques of the fairy tale. To look into the translation techniques of the Chinese-Korean fairy tale, this thesis analyzes the text by using the following techniques: 'expatiation & addition', 'abbreviation & elimination', and 'transition', 'shifting & arrangement'.

The prominent character in 'expatiation & addition' is to use many symbolic expressions (onomatopoeia, mimicry-word). Due to rhymes and rhythms in the symbolic expressions, these expressions are helpful for promoting children's linguistic development. When translating, word-addition is used to give a sense of realization to children, or to relate the linguistic situation to children's target language. Also, due to the conversion into the dialogue style or to the need to give the readers added effect, some words are added to translating. 'Abbreviation & elimination' are usually used at the introduction, and can eliminate unnecessary information in the contents. Also, the technique of subject-conversion is used in 'shifting & arrangement'. When viewing the

expression-techniques on the whole, it is found that in the maintenance of semantic binding, rhythms in the text and the intention of the translator are widely displayed in 'expatiation & addition', 'abbreviation & elimination', and 'shifting & arrangement,' etc.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airy tale style is translation in the style.

▶Key Words: Chinese-Korean, translation, fairy tale style, Chinese fairy tale, onomatopoeia.

백수진

계명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중국어학(문법)

china1100@kmu.ac.kr

관심분야: 번역이론

논문투고일 : 2005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5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05년 6월 10일

